

# 南北韓 經濟交流의 可能性과 戰略

金 英 秀  
 〈淑明女子大學校 講師〉

## 1. 南北韓 經濟交流에 대한 基本認識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은 직접은 물론 간접교역도 하지 않고 있다.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다시 이어서 하나의 민족국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온 겨레가 갖고 있으나 남북 서로가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보다 階級을, 우리는 계급보다 民族을 소중하다고 믿고 있기에 실질적인 교류나 궁극적인 통일을 향한 화합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 쪽이 자신의 목적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화합의 방도는 쉽게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역사가 언제나 예측한 방향으로만 흐르라는 법은 없다. 어렵다고 여겨지던 동서독의 관계변화와 동구라파의 정치적 민주화의 열풍을 보노라면 南北韓간의 政治的 協商도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정치적 협상·타협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단계는 非政治的 次元에서의 交流이다. 왜냐하면 經濟的 交流은 이념의 차이와 장기적 분단에서 오는 이질화로 인한 정치적 긴장을 덜 고조시키고 동질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능한 남북한 경제교류를 대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基本認識은 무엇인가?

첫째, 남북한의 교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利得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한 쪽의 이득이 다른 한 쪽의 손해라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상황을 전제로 하지 말고 非제로섬 게임의 利得 行列表를 가정해야 한다.

둘째, 일방의 우위를 강조하는 또 일방이 다른 한 쪽을 압도하려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서로 존재할지라도 일방이 다른 한 쪽을 압도하는 태도로 교류에 임한다면 분단의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互惠·平等의 原則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전략과 산업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原初的인 補完의 可能性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많아도 북한이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 그러나 相補性을 전제해야 교류의 물꼬는 트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제상태를 발전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하거나 매우 낙후된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대개 남북경제발전을 비교하여 북한의 경제상태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결과에서 야기하는 것일 뿐 북한의 현경제발전을

세계발전도상국들과 비교하면 아주 못사는 편은 아니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여 交易의 必要性조차 疑心스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 2. 南北韓 經濟交流의 豫想效果

경제교류가 진행되면 최단기적인 효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는 交易增進, 더 나아가서 자본과 기술협력에 의한 經濟利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이라도 한반도를 분단된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분할시켜 놓는 것보다는 단순한 중개무역, 물자교류를 벗어나 自由貿易地域 設定, 關稅協定 등으로 진전이 가능하여진다면 이는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規模의 經濟性(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존자원과 지역특성에 따른 분업화를 통한 이득도 발생한다. 또 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의 증진으로 인한 信賴增進을 유발시켜 서로의 창구를 통하여 북한의 경우는 미·일·서구와 같은 서방진출, 남한은 소·중·동구에로의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다. 또한 교류를 통한 경쟁에 따른 경제운영의 효율화와 기술수준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은 첫째 對共產圈 進出을 위한 정책적 가치부여, 둘째 경제통합의 점진적 실현에 따르는 經濟的 實利追求, 셋째 민족공동체로서의 國家統一을 위한 첫 단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40여년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전무한 경직된 상황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질화가 더 심화되기 전에 동서독처럼 교류의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은 자명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 상대방의 경제에 관한 情報과 그 정보에 대한 現況分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남북한의 경제력은 얼마만큼 차이

가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서로 협력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 3. 南北韓 經濟交流의 可能領域

### 1) 南北韓 經濟體制 및 經濟力 比較

남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①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② 市場경제와 計劃경제 ③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統制 ④ 開放經濟체제와 閉鎖經濟체제로 비교·구분될 수 있다.

먼저 經濟總量을 比較하면 남한과 북한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1960년에 남한이 북한의 2.9배, 1981년에 3.9배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약 6배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1.2:1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여 1981년 1.8:1, 1980년대 말에 약 3:1로 남한이 현저히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1인당 국민소득의 현저한 격차는 남북한 경제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즉 북한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과는 달리 북한은 대외무역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북한에서의 '貿易'의 뜻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은 부등가 교환에 의한 착취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호상성의 원칙에 의해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즉 사회주의 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사용가치의 교환이 위주로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貿易規模를 比較하면 남한은 1970년 북한의 4.1배, 1975년 6.7배, 1980년 11.9배를 차지하여 점차 그 차이가 커지다가 1980년대 말에는 약 30배 가량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수출규모는 1970년에 남한은 북한의 2.8배 정도였으나 1984년에는 북한의 24.6배로 증대되었고 수입 규모면에서도 남한은 수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表-1〉

(87년말 현재)

| 구분        | 단위               | 南 韓     | 北 韓     | 南北對比     |
|-----------|------------------|---------|---------|----------|
| 인구        | 만명               | 4,208   | 2,069   | 2.0 : 1  |
| 경제활동인구    | 만명               | 1,612   | 861     | 1.9 : 1  |
| 면적        | 천Km <sup>2</sup> | 99.2    | 122.1   | 1 : 1.2  |
| G N P     | 억\$              | 1,186.0 | 193.7   | 6.1 : 1  |
| 1인당 G N P | \$               | 2,826   | 936     | 3.0 : 1  |
| 경제성장률     | 실질%              | 12.0    | 3.3     | -        |
| 환율(年中)    | 美1\$對比           | 822.4   | 2.14    | -        |
| 재정규모      | 억\$              | 195.3   | 140.6   | 1.4 : 1  |
| 재정부담률     | %                | 16.5    | 73.4    | -        |
| 軍事費支出     | 억\$              | 59.8    | 42.2    | 1.4 : 1  |
| 군사비/G N P | %                | 5.0     | 21.8    | -        |
| 군사비누계액    | 억\$              | 514.8   | 528.6   | 1 : 1.03 |
| 1인당 군사비   | \$               | 142     | 203     | 1 : 1.4  |
| 무역규모      | 억\$              | 883.0   | 40.6    | 21.7 : 1 |
| 수출        | 억\$              | 472.8   | 16.7    | 28.3 : 1 |
| 수입        | 억\$              | 410.2   | 23.9    | 17.2 : 1 |
| 무역의존도     | %                | 69.7    | 20.7    | -        |
| 외債        | 억\$              | 356.0   | 52.1    | 6.8 : 1  |
| 에너지공급총량   | TOE              | 6,100   | 2,887   | 2.1 : 1  |
| 발전설비용량    | 만KW              | 1,902   | 637.7   | 3.0 : 1  |
| 석탄생산량     | 만M/T             | 2,427   | 3,900   | 1 : 1.6  |
| 정유생산능력    | 만M/T             | 3,558   | 350     | 10.2 : 1 |
| 강철생산능력    | 만M/T             | 1,854.0 | 480.5   | 3.9 : 1  |
| 비철금속생산능력  | 만M/T             | 44.4    | 46.4    | 1 : 1.1  |
| 시멘트生産能力   | 만M/T             | 2,600   | 932     | 2.8 : 1  |
| 화학비료생산능력  | 만M/T             | 311     | 351     | 1 : 1.1  |
| 자동차생산능력   | 만대               | 65      | 2       | 32.5 : 1 |
| 조선능력      | 만G/T             | 300     | 21.4    | 14.0 : 1 |
| T V 생산능력  | 만대               | 1,248   | 24      | 52.0 : 1 |
| 직물생산능력    | 억m               | 55.0    | 6.4     | 8.6 : 1  |
| 식량작물생산량   | 만M/T             | 668.2   | 495.2   | 1.4 : 1  |
| (쌀생산량)    | 만M/T             | (549)   | (203.4) | 2.7 : 1  |
| 수산물생산량    | 만M/T             | 333.2   | 212.3   | 1.6 : 1  |
| 도로총연장     | 천Km              | 54      | 22      | 2.5 : 1  |
| (고속도로)    | (Km)             | (1,539) | (240)   | 6.4 : 1  |
| 철도총연장     | Km               | 6,340   | 4,703   | 1.3 : 1  |
| (전철구간)    | Km               | (1,154) | (2,867) | 1 : 2.5  |

資料 : 국토통일원.

산업생산규모의 확대로 원자재, 자본재, 원유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1970년에는 북한수입규모의 5.2배였던 것이 1980년대 말 현재는 약 30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外債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률은 1981년 한국이 13%, 북한은 약 30.0%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경제의 외채부담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南北韓 주요 經濟指標를 정리하면 <表-1>과 같다. 이 표를 볼 때, 남한이 북한보다 전반적인 면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른바 경제성장의 '南高北低' 現象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南北韓 經濟協力可能的 領域

경제규모면에서나 성장의 속도면에서나 모두 남한의 우위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라는 當爲性 次元에서 남북한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토대로 南北韓의 商品交易의 可能性을 診斷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수출구조는 공통적으로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에 높은 競爭力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군을 다

시 세분화해 보면 북한은 生産性 消費財에, 남한은 消費性 消費財에 特化되는 分業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업구조는 남북한간의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는 앞으로 생산재 생산부문은 북한이 남한에게, 소비재 생산부문은 남한이 북한에게 각각 補完的 役割을 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은 북한에 대해 소비성 소비재, 경공업 제품, 노동집약적인 상품(예를 들면 섬유, 의류, 신발 등)과 내구성 가정용 소비재(예를 들면 TV, 라디오, 냉장고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북한은 광물자원 그리고 이 천연자원의 일차가공품(예를 들면 선철, 아연 기타 광물 자원)에서 보완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남북경제회담에서 제의된 교역대상 품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자본축적 구조는 산업구조상 內包的(intensive) 性格을 갖고 있음에 반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구조는 外延的(extensive) 産業構造下에서 지배적인 산업제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국제화 패턴 특히 합작투자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南北韓이 提議한 交易對象品目

<表-2>

| 남한측   |  | 북한측  |   |
|---|--|--|---|
| 購入 希望 品目  | 販賣 可能 品目   | 購入 希望 品目   | 販賣 可能 品目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탄, 철광석, 선철, 아연, 규사, 고철 등 공업제품</li> <li>• 명태, 누에고치, 쌀,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li> <li>• 기타 한약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금속제품</li> <li>• 가정용, 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차 동차 등 기계류</li> <li>• 시제, 천연색 TV,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li> <li>•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 그리세린 및 의약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제품</li> <li>• 남해어족,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 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제품</li> <li>•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li> </ul> |

